

[아토피 피부염_한방]

아토피성 피부염의 한방약물요법

저자 송보완
경희의료원 약제본부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피부습진 질환으로 전 인구의 0.5~1%, 어린이의 경우 5~20%, 성인에서도 1~3%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대의학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는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조절제 연고에 의한 외용요법을 비롯하여 소양증에 대해서는 항히스타민제나 항알레르기제를 경구투여하기도 하며, 원인이 되는 특이 항원을 주입하거나 경구투여하는 탈감작요법(desensitiza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보습제 등을 포함한 스킨 케어를 하며, 악화요인을 가능한 한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적 치료에 대해 저항성인 난치증례도 많으며, 그 대안으로써 한방약물요법의 유효성이 기대되고 있다.

역간산은 세로토닌(5-HT) 신경계와 글루타민산(Glu) 신경계를 매개로 한 작용기전을 통해 가려움증과 건조한 피부의 치료에 유용성이 입증되었고, 태선화 병변을 동반한 아토피성 피부염에는 계지복령환이 효과적이며, 건조, 홍반, 색소침착 경향을 보이는 아토피성 피부염에는 온청음 등 각각의 증상에 따라 다양한 처방이 응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보조적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방외용제 및 한방입욕제 등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키워드

아토피성 피부염, 역간산, 온청음, 계지복령환, 십미패독탕

1. 병인 및 병태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50% 이상은 유전적 소인이며, 여러 가지 면역학적 이상이 동반된다.

주위의 환경물질들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알레르겐으로 작용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새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아토피 발병률이 높은 것은 새집증후군과 관련이 깊다. 건축자재나 벽지, 페인트에서 나오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에 오염된 실내 공기가 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본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태열(아토피성 피부염)을 한의학에서는 유선, 태선, 태렴창, 내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신 중에 어머니가 파, 마늘, 부추, 산초 등 더운 성질의 맵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것으로 본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오래 전부터 태열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처럼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산부는 늘 음식 섭취에 유의하고, 특히 알레르기 체질인 임산부들은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장 큰 특징은 심한 가려움증과 외부의 자극 혹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가려움증은 보통 저녁에 심해지고, 이 때 피부를 긁음으로써 피부의 습진성 변화가 발생하며, 습진이 심해지면 다시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연령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다르다. 생후 2세까지의 유아기에서는 주로 머리, 얼굴, 몸통, 팔다리가 퍼지는 부위에 붉고, 습하고 기름지고 딱지를 형성하는 급성기 습진으로 나타나지만 사춘기 이전까지의 소아기에서는 이마, 눈 주위, 귀 주위, 사지 접히는 부위의 피부가 두꺼워지고 건조해지는 습진이 나타난다.

2. 한방약물요법

1) 억간산(抑肝散)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려움증은 a) 건조한 피부, b) 피부의 외부, 내부로부터의 자극, c) 소양 유발인자의 발생, d) 가려움 발생, e) 긁음, f) 피부장벽의 파괴를 통해 ‘가려움-긁음-피부손상-가려움’이라는 itch-scratch cycle을 형성하여 병태는 악화된다. 따라서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억간산은 당귀, 백출, 복령, 조구등, 천궁, 시호, 감초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으로 원래 소아의 야간울음, 신경증, 불면증 등에 사용하는 한방처방이지만 최근 행동 및 정신심리적 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인 환각, 공격성, 흥분성 및 이상행동 등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고 있어 BPSD의 치료제로써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가려움증에 관여하는 세로토닌(5-HT) 신경계와 글루타민산(Glu) 신경계를 매개로 한 작용기전을 통해 가려움증과 건조한 피부의 치료에 대한 억간산의 유용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Jiang 등의 연구에서는, 환경 스트레스 부하 마우스에 대하여 억간산을 통한 피부병변의 악화 억제, 비만세포와 호산구 침윤 억제, 피부수분량 유지 및 혈청 corticosterone 양의 유의한 억제를 확인하였다.

Funakushi 등에 의한 비슷한 마우스실험에서 억간산은 피부병변 악화 및 피부증산량 증가를 억제하고, 피부에서의 비만세포 침윤 억제, 피부에 증가한 NMDA 수용체 발현의 감소, 감소한 GLT-1 레벨의 증가, 증가한 Glu 및 histamine 양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억간산의 효과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도,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강도와 사용량을 스코어화한 검토를 통해 억간산이 관련 스코어를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계지복령환(桂枝茯苓丸)

계지복령환은 어혈(瘀血)의 증(證)으로 가려움, 태선화를 동반한 아토피성 피부염에 처방되어 온 대표적인

구어혈제(驅瘀血劑)이다. 구어혈제란 혈전증이나 동맥경화 등의 말초순환장애에 처방되던 한방약으로 항혈전, 항염증, 말초혈관 확장, 혈액응고 억제, 이수, 진통, 혈소판응집 억제 등에 작용하는 계지, 작약, 도인, 복령, 목단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약과 목단피에 함유되어 있는 paeoniflorin은 항염증작용, 진정작용, 진통작용이 있으며, 피부혈관 내피세포에서 cyclooxygenase-2 (COX-2)와 유도형 NO 형성효소(inducible NO synthase; iNOS)의 억제를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계지복령환의 효과에 관한 Mizawa 등의 연구에서는, 1개월 도입기간(피진의 악화 경향이 없는 상태 유지) 후에 계지복령환을 4~6주간 복용시키고, 치료 전·후의 임상평가를 시행하였다. 임상 소견 평가는 SCORAD (SCORing of Atopic Dermatitis) Index를 사용하여 태선화 스코어에 따른 태선화 군과 비태선화군을 비교하고, VAS (Visual Analogue Scale) 스코어를 사용하여 어혈군과 비어혈군의 가려움을 비교하였다.

전반개선도는 어혈군과 비어혈군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고, 양군 모두 75% 이상의 환자에서 경도개선 이상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태선화군과 비태선화군을 비교했을 때 태선화군에서 높은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태선화군 증례만을 대상으로 계지복령환을 장기투여(9~67주)한 결과 어혈, 비어혈에 상관없이 VAS 스코어와 SCORAD Index의 높은 개선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계지복령환은 특히 태선화 병변을 가지고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유효하며, 1개월 전·후의 복용을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장기투여도 시행해 볼 가치가 있는 치료법이라 평가하였다.

3) 온청음(溫淸飲)

온청음은 사물탕과 황련해독탕의 합방으로 지황, 작약, 천궁, 당귀, 황금, 황백, 황련, 산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청음은 사물탕과 황련해독탕의 합방으로 영양을 좋게 하여 피부건조, 갈색화를 개선하는 사물탕의 효과와 황련해독탕의 항염증작용 효과를 기반으로 건조와 염증, 가려움이 심한 경우에 사용된다.

피부가 건조하며 색소침착이 되어 있고, 염증이 발현된 상황의 피부라면 아토피성 피부염 외에 만성 습진, 베체트병에 의한 재발성 아프트구내염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3개월 동안 온청음 가미방을 투여한 연구에서 온청음 투여기간 동안 SCORAD Index 검사 결과 증상 호전을 확인하였다.

4) 십미패독탕(十味敗毒湯)

Hashiro 등은 현대의학적 표준치료에 의거하여 치료 중인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피부증상에 대하여 십미패독탕을 병용하여 피진에 대한 요소별 개선도를 검토한 결과, 피진 점수는 4주 후부터 유의하게 저하되었고, 12주 후 피진 개선도는 $45.8 \pm 23.1\%$ 였다. 또한 피진의 3요소(홍반/급성기 구진, 습윤/가피, 만성기 구진/결절/태선화) 및 면적에 대하여 모두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습윤/가피가 개선되었다. 또한 피진 상황과 피진 개선도와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피진 개선도는 만성기의 구진/결절/태선화의 비율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십미패독탕의 개선 효과는 피진 중증도와 관계없이 만성기 구진/결절/태선화 비율

이 낮은 쪽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있어 서양의학적으로 관찰된 피부증상에 대한 치료의 대안으로 심미패독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증상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본치(本治)로서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지는 등 기허 증상이 있는 타입은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허증상에 더하여 불안감 등 정신증상이 있는 타입은 억간산가진피반하탕(抑肝散加陳皮半夏湯)을, 홍반이나 열감이 있는 피진은 황련해독탕과 백호가인삼탕을 쓸 수 있고, 구진 혹은 농포와 같은 삼출성 화농성 염증 증상이 있는 피진은 위에서 살펴본 심미패독탕을 쓸 수 있다. 또한, 피부의 건조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사물탕과 당귀음자(當歸飮子), 태선화나 색소침착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계지복령환(桂枝茯苓丸)과 도핵승기탕(桃核承氣湯), 수포 형성이나 삼출액을 동반하는 습윤성 병변의 경우에는 월비가출탕(越婢加朮湯)과 소풍산(消風散), 홍반에 건조, 태선화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온청음과 형개연교탕(荊芥連翹湯)을 적용하는 등 아토피성 피부염의 특징적 증상에 적합한 처방을 선택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한방외용제에 의한 보조요법

1) 한방외용제

아토피성 피부염의 국소외용제로는 hydrocortisone, triamcinolone, fluocinolone 등의 스테로이드제를 비롯하여 면역조절 치료제로서 tacrolimus, pimecrolimus 제제 등을 사용하고 피부보습제 등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된 여러 종류의 한방외치법으로는 서양의학의 wet-wrap dressing을 응용하여 한약재 진탕액으로 습포요법을 시행하는 방법, 항염, 항균, 진정 및 항알레르기 등의 효과가 있는 tea tree, lavender, chamomile 혼합물을 진물 나는 부위에 도포하는 방법, 이들 에센셜오일 원액을 베이스 로션에 혼합하여 도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 외치법과 내치법의 병행이 효과적이긴 하나, 아직 외치에 사용하는 한방제제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다. 한방외용제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비하여 장기간 연용에도 부작용이 적은 특징이 있어 아토피성 피부염의 보조치료제로서 기대되는 만큼, 기존 한의서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한약 및 처방을 기초 자료로 삼아 한방외용제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2) 한방입욕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목표는 건조한 피부에 대한 적절한 수분공급(hydration)과 악화요인의 제거, 그리고 가려움과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것 등인데, 적절한 수분공급을 위해서는 목욕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피부연화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한때 목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장시간의 잦은 목욕은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적절한 목욕은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한방 입욕제를 혼합한 물로 꾸준히 목욕을 하면 사용하는 동안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가려움증도 가라앉힐 수 있다.

쑥탕목욕: 쑥을 넣은 베주머리를 뜨거운 물에 넣고 목욕을 하거나 쑥물을 달인 다음 그 물을 피부에 발라주기를 계속하면 가려움증을 빨리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삼백초목욕: 썰어서 말린 것을 한 줌 베주머니 같은 것에 넣어서 욕탕에 넣고 목욕을 한다. 이 방법은 아이들의 땀띠에도 효과적이다.

자소엽 목욕: 자소엽은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적인 약재로 이용될 수 있다. 20 g 정도의 차조기를 잘게 썰어 자루에 넣은 뒤, 욕조에 담근뒤 목욕을 한다. 차조기는 반드시 잎이 자주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밤나무 잎: 밤나무 잎, 밤의 짧은 속껍질, 밤송이 껍질 중 어느 것이든지 좋다. 날 것이나 말린 것을 물에 넣고 우려 목욕을 하면 좋다. 밤송이 1개를 껍질째 3대접 정도의 물에 넣어 푹 삶은 뒤, 그 물을 피부에 발라주어도 효과적이다.

약사 Point

1. 억간산은 가려움증에 관여하는 세로토닌(5-HT) 신경계와 글루타민산(Glu) 신경계를 매개로한 작용기전을 통해 가려움증과 건조한 피부의 치료에 유효하다
2. 계지복령환은 특히 태선화 병변을 가지고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유효하다.
3. 온청음은 사물탕과 황련해독탕의 합방으로 영양을 좋게 하여 피부건조, 갈색화를 개선하는 사물탕의 효과와 황련해독탕의 항염증작용 효과를 더하여 건조와 염증, 가려움이 심한 경우에 유효하다.
4. 십미패독탕의 개선효과는 피진 중증도와 관계없이 만성기 구진/결절/태선화 비율이 낮은 쪽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 참고문헌 ■

1. Jiang J. et al. J. Dermatol. Sci., 56, 1, p.37(2009)
2. Funakushi N. et al. Arch. Dermatol. Res. 303, 9, p. 659(2011)
3. Yoshihisa Y. et al, Mediators of Inflammation, Vol.2010(2010), Article ID 804298, p.8
4. Mizawa M. et al, ISRN Dermatol., Vol.2012(2012), Article ID 158598, p.6
5. M. Hashiro et al, Skin Research 10, 1, p.34(2011)